

#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희망과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 향상을 위한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성 검증\*

백인혜(白仁惠)\*\*

오인수(吳仁秀)\*\*\*

## 논문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희망증진을 위한 집단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저소득 청소년의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모형 설계에 따라 희망 이론을 바탕으로 요구조사와 전문가 자문의 과정을 통해 개발되었다. 개발된 멘토링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도시 A중학교의 1학년 학생 29명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운영하여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교육 및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생 3명이 멘토로서 멘티를 지도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으며 멘티의 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시 전과 실시 후, 그리고 프로그램 종료 한달 후에 총 3차에 걸쳐서 설문지를 실시하고 공변량분석 및 평균차이검증으로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희망과 탄력성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간 유의한 사후검사 평균 차이가 나타났으며, 희망과 탄력성 모두 프로그램 실시 후 1개월간 효과성이 지속되었다. 그러나 성취목표지향성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희망이론과 요구조사에 근거하여 프로그램 개발 모형에 따라 집단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의 희망 및 탄력성 향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저소득 청소년, 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 멘토링 프로그램

\* 본 연구는 한국장학재단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열)의 지원으로 진행되었음.

\*\*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생

\*\*\* 교신저자,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

## I. 서론

오늘날의 청소년은 급변하고 다양해지는 사회 속에서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새로운 삶의 문제를 직면하고 혼란을 겪고 있다. 청소년이 경험하는 역경상황이나 위협요인은 부모의 이혼에서부터 가정의 경제적 빈곤, 학교폭력 등 다양하다.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이러한 위협을 어떻게 극복하고 적응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발달을 저해하는 이러한 위협요인 중에서 빈곤이나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는 청소년의 전인적 발달과 심리적 안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희, 황혜정, 1998; 김순규, 2004; 백정재, 이재연, 1997; Conger, et al., 1994; Goosby, 2003).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프로그램과 상담전략들이 개발되어 왔다(박량규, 강우선, 2006; 박현선, 1998; Graber, H. V., & Wolfe, J. L., 2004; Luster et al., 2004). 저소득 청소년의 심리와 정신건강에 대한 대부분의 선행 연구는 주로 빈곤의 문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살펴보았지만, 최근에는 어려운 가정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저소득 청소년의 보호요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오승환, 2006; 이해리, 2008; 최윤정, 이시연, 2006; Luther, 1991). 특히 상담을 통해 심리적 갈등과 정서적 불안정을 선제적으로 개입하여 이들의 적응력을 높이고 잠재력을 계발하는 상담접근이 주목받고 있다(한상철, 1997). 특히 변화에 매우 민감한 청소년 시기의 발달적 특징을 감안할 때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의 적응을 돕고 동시에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전략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청소년의 심리적 적응과 정신건강을 돕는 상담적 실천전략과 관련하여 최근 관심을 받는 프로그램으로 멘토링 프로그램(Mentoring Program)이 있다. 멘토링의 가장 핵심적인 장점은 멘토와 멘티 간의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긍정적인 자아 개념 형성을 돕고,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에게도 심리사회적 성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멘티와 멘토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최경일, 2008; 정무성, 2005; Jackson, 2002).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와 멘토간의 정서적 유대와 상호만족을 통해 폭넓은 지지체계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에 특히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주로 학교중도탈락자, 한부모 가정, 빈곤가정 청소년 등과 같은 위협요인에 노출된 높은 고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다(김지선, 2003).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은 학습상담 및 문화체험, 특기계발 등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적응력 향상과 학교생활태도 개선의 내용이 포함된 멘토링 프로그램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천현장은 학교가 아닌 사회복지기관이나 지역 내 지원센터를 통해 연계되었으며, 학교현장에서 멘토링 프로그램이 실시되어도 심리·정서적 차원의 접근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지원체제에 있어서 학교와 지역기관 간 협력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제기되어왔지만, 학교현장에서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심리·정서적 멘토링 프로그램의 연구와 개발이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필요성에 기반하여 저소득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돕는 보다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타당도 높은 프로그램의 구성과 변인선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심리·정서적 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보호요인과 저소득 청소년 대상 멘토링 프로그램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전문가 집단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내용 변인으로 희망(hope), 탄력성(resilience) 및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orientation)을 선택하고 저소득 청소년에게 이러한 요인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을 학교현장을 기반으로 개발하였다.

희망은 목표 지향적 개념으로 희망적 사고를 하는 사람은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고 역경이전의 모습으로 회복하며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보인다(Snyder, 1991). 선행연구를 통해 다양한 측면에서 희망이 아동 및 청소년 발달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임이 확인되었고 희망연구의 실천적 과제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 되었다(신종임, 현채송, 2008; 원두리, 2011; 현미열, 이종은, 박선남, 2003; Snyder,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증진을 위한 멘토링 전략의 개발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요인을 확인하고 희망연구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였다.

희망요인과 함께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탄력성(resilience)요인이 있다. 탄력성은 역경(adversity)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적응(adjustment)하는 능력이다. 탄력성은 그 특성상 희망의 하위요인인 희망경로사고(hope pathways)와 유사한 면이 있다. 희망경로사고를 통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미래에 대한 결과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게 된다. 청소년의 탄력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청소년의 심리 사회 적응 및 학교생활적응에 있어서 탄력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다(김택호, 서미, 조한익, 2005; 이해리, 조한익, 2005; 이정숙 외, 2010; Masten, 2001). 또한 저소득 청소년에 관한 선행연구들 역시 청소년의 탄력성 향상이 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보호요인임을 확인하였다(박현선, 1999;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김현수, 오인수, 2012; Garmezy, 1991).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적응력 향상을 위해 탄력성 변인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또한 희망증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자신의 목표를 이해하고 이루고자 하는 동기와 의지를 포함하여 성취에 대한 성향을 의미하는 성취목표지향성(achievement goal-orientation)이 있다. 성취목표지향성은 청소년 및 대학생에게 있어서 특히 학업행동이나 성취결과뿐만 아니라 심리 및 정서적 적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고(최병연, 2001; 권성연, 2007; 양명희, 2009; Dweck, 2000), 성취목표지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인이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되었

다(송영명, 이명자, 2009; 이승현, 이영호, 2011).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성취목표지향성이 이들의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자신의 외적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형편을 이해하고 목표를 이루고자하는 동기와 의지가 있을 경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에너지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의 발달과 적응을 돕기 위한 상담전략 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다양한 결핍대상을 위한 성취목표지향성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필요성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희망, 탄력성, 목표지향성 증진을 위한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연구 1)와 개발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연구(연구 2)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저소득 청소년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소득 청소년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상담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은 멘티의 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특징

저소득 가정이란 생활보호대상가구 혹은 최저한의 생활보호 수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의 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는 계층으로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혹은 빈곤층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저소득가정의 경제적 결핍에 의한 불편함이나 문제들은 변화에 민감한 청소년에게는 심리사회적 적응의 문제로 이어지기 쉽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특징을 살펴볼 때, 빈곤의 문제를 청소년의 가정환경과 학교환경을 바탕으로 어떠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고, 저소득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 결과를 가질 수 있는 보호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통해 확인한 후 이러한 요인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의 구성요인을 탐색하였다.

먼저, 저소득 가정의 환경요인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의 선행연구는 일관적으로 저소득의 부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2004년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ren: SPSC) 데이터를 분석한 박현선, 정익중, 구인희(2006)는 빈곤가정 아동이 일반가정의 아동에 비해 부모의 이혼, 별거 및 부모의 고졸이하 학력, 부의 미취업, 가구주의 실직비율 등 가족의 구조적 결손 위험이 높고 이 위험요인은 아동의 사회·정서적 문제행동(우울 및 불안, 주의집중, 비행,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저소득 청소년의 가족 환경요인은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최윤정, 이시연, 2006; 2007),

저소득 가정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은 단순히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가족의 와해, 이혼, 부모의 약물남용, 우울증 등의 정신건강문제와 가정문제의 부정적 경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민하영, 김경화, 2007; 오경자 외, 2003; 오경자, 문경주, 2006; 오승환, 2006; DeCarlo Santiago & Wadsworth, 2009).

반면 저소득층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다양한 보호요인 역시 확인되었다. 예를 들어, 부모의 지지가 높은 저소득 청소년은 비행 및 우울의 수준이 낮은 편이고(김경희, 황혜정, 1998; 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Conger et al., 1994), 가족지지와 더불어 어머니의 감독 역시 저소득 청소년의 부적응을 예방하는 주요한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최윤정, 이시연, 2006). 저소득 이혼가정의 아동이라도 부모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긍정적으로 대처하고 친구의 지지가 강할수록 적응에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한준아, 박경자, 2008). 저소득가정이라도 건강한 부모의 개입과 양육은 청소년 발달의 주요한 사회적 지지가 된다는 연구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Harris & Marner, 1996; Hashima & Amato, 1994). 이러한 연구들은 부모의 적극적 지지와 올바른 양육태도 등이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켜주고 긍정적 결과를 가져오는 보호요인임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저소득 가정 부모대상 가정의 경우 생활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맞벌이를 하거나 경제적 무능력으로부터 오는 심리적 불안정으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참여에 제약이 따르는 결정적인 제한점이 있다(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 청소년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적절한 감독 및 교육을 학교에서 직접 제공하는 멘토링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가정의 취약성을 극복하는 전략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상당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에게 학교현장은 매우 중요한 심리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는 빈곤으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부적응을 학교에서 예방하는 접근을 사용하였다. 다시 말해, 선행연구의 프로그램이 여러 지원단체 및 기업을 통해 실행된 반면, 본 연구는 학교를 기반으로 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특히 저소득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에 관한 연구들은 저소득으로 인한 영향력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준다. 종단연구 자료 분석에 따르면 빈곤아동이 일반가정아동에 비해 경제적 여건에 따른 학업성취의 불균등과 학업성취 및 학교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저소득층 청소년은 학교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높으며(김영희 외, 2000), 학교적응력이 낮으며 교사지지를 덜 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으며(김희정, 2003), 진로장벽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노경란, 2011). 이는 빈곤한 청소년이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Huston, 1991). 한편, 학교의 분위기, 학교지지 및 학교 내 활동의 참여 정도와 같은 학교의 심리사회적 환경요인은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임에도 책임감, 계획성, 민주적 학교 분위기, 교과 수업의 활동 참여가 높은 학생들은 학교적응유연성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고(박현선, 1998; Garmezy, 1991;

Luther, 1991), 저소득 학생의 경우 학업적 자아개념, 자기결정성 동기, 교사 학생 관계, 행동조절 전략 및 교사지원의 변인이 이들의 적응을 돕는 변인으로 작용하였으며(김현수, 오인수, 2012), 교사지지와 더불어 또래지지(김희정, 2003; 신현숙, 2004)와 교사지지 및 전문가지지(오승환, 2006)도 학교적응의 보호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가정의 경제적 결핍이라는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다양한 보호요인을 강화시키는 상담전략을 사용하면 이들의 부적응 문제를 예방하고 적응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2. 멘토링 프로그램의 유용성 및 선행연구 고찰

2008년 통계청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청소년의 고민상담 대상은 친구가 51.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문제를 주변의 친구들과 가장 많이 의논하며, 이러한 경향은 멘토링에 대한 필요성과 효과성을 지지한다. 특히 멘토링은 도움을 받는 멘티뿐만 아니라 멘토에게 진로탐색,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문제의 예방이라는 성격을 지님과 동시에(김남숙, 2011; Grossmna & Garry, 1997) 멘토와 멘티의 의미있는 관계를 통해 사회적 성숙을 돕고 멘토의 리더십 향상, 의사소통 기능의 강화, 지속적인 상담과 경청을 통한 효과적인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김경준 외, 2010; 김남숙, 김승현, 2011). 이러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유용성에 기초하여 긍정적 적응과 학습 및 학교생활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학교나 방과 후 지원센터 등을 통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멘토링 프로그램이 청소년 발달에 도움을 주는 활동으로 인기를 얻었다. 멘토링은 학업 및 학습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다루는 프로그램과 연구가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멘토링 프로그램에서 멘토와 멘티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확대시킬 수 있는 심리·정서적 방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학습상담 멘토링에서부터 정서적 안녕감향상을 위한 멘토링까지 다양하게 연구로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저소득가정과 같은 취약가정의 자녀들에게는 멘토링 프로그램이 효과적이다(Nasrallah, 1992). 교육적 열망과 기회의 제한, 학교부적응 등의 성장에 대한 방해요인(위험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의 개입과 긍정적 대처라는 보호요인을 멘토링을 통해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접근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몇몇 연구들은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다양한 형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이해와 다른 멘토링 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김순규, 이재경(2007)은 월 1회 구조화된 집단 프로그램과 캠프 및 이메일을 통한 지속적 교류를 통해 자존감과 학교적응력을 향상됨을 확인하였고, 박현선 외 연구자들(2007)은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멘토링을 통해 자존감, 자기유능감, 미래에 대한 진로의식, 대인관계기술 등에서는 유의미한 상승을 확인하였다. 최선희 외 연구자들(2010) 역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에게 멘티의

성적, 대인관계, 예절, 비전에 있어서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자들은 보다 효과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제언점을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활용하였다. 예를 들어, 김순규, 이재경(2007)은 일대일 관계보다 일대다수(1:多)의 관계를 통해 멘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멘티들 사이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형식을 제안하였다. 박현선 외 동료들(2007) 역시 집단 멘토링의 형태는 교우관계, 초기 관계 형성에서 1:1의 관계보다 용이했던 점을 지적하였다.

멘토링은 1:1 형태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멘토링과 1:다수의 형태로 진행되는 집단 멘토링으로 구분되는데 집단 멘토링은 다수의 대상에게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1:1 만남에 대한 부담을 줄여줄 수 있으며 멘티간의 상호작용을 활용하는 장점을 지닌다(Herrera, Vang, Gale, 2002).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전체 멘토링 프로그램의 약 20%가 집단 멘토링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ipe & Roder, 1999). 이러한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해 집단 멘토링은 집단의 역동을 통해 멘티의 결속력이 향상되고, 유능감이 증대되며, 프로그램의 목표 성취가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확인되었다(Boddy, 2009; Jent & Niec, 2009; Kaye & Jacobson, 1995). 특히 집단 멘토링 중에서 소집단의 형태로 진행되는 소집단 멘토링은 멘토와 멘티의 상호작용을 통한 편안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멘티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함으로써 멘토링의 심리·정서적 지원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조형숙, 김현주, 2005). 이러한 소집단 멘토링은 집단상담(group counseling)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한 집단역동을 활용하는 점에서 비슷하지만 집단상담이 심리·정서적 지원과 동시에 치료를 수반하는 점에서는 차이를 지닌다(Huizing, 2012).

이러한 형태의 집단 멘토링은 초등 예비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연구(권혁일, 2010)에서 멘토교사 1인과 신입생 45인, 재학생(2학년이상) 1인으로 구성하여 학습공동체 형식으로 운영된 적이 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제언과 결과를 바탕으로 일대다수의 형식을 유지하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멘티의 수를 3명 이내로 제한하였다. 김남숙, 김승현(2011)은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멘토의 요구사항을 분석하는 것의 중요성과 동료 슈퍼비전을 효과성을 제언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상담교사와의 피드백을 통해 동일학생을 상담하고 대면한 동료간의 전략탐색 및 공감의 질이 될 수 있도록 멘토관리를 실시하였다. 장수한, 전미진(2005)은 많은 멘토링 프로그램이 지역의 기관 프로그램으로 실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학교 공간에서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음을 제안하여 본 연구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천현장을 학교 상담실로 정하고, 학교 전문상담교사와의 긴밀한 연계와 상담교사를 통한 직접적인 피드백 제공을 시도하였다.

### 3. 프로그램 구성의 이론적 근거

본 연구는 희망이론에 근거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희망증진과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 향상

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Snyder의 희망이론(Snyder et al., 1991)에 따르면, 희망은 목표지향적 에너지인 주도사고와 목표성취를 위한 계획인 경로사고의 상호작용으로 생겨나는 긍정적인 동기부여의 상태라고 정의된다. 주도사고(Agency Thinking)는 목표를 향해 행동을 실천함에 있어 자신감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의식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주도 사고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이 있으며(이희경, 2007), 성취가능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최동욱, 2005). 뿐만 아니라 희망이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이용철, 2009). 이는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은 더 긍정적인 심리 상태를 유지하고(Snyder & Feldman, 2000), 사회적으로 더 적응적이라(Snyder et al., 1997)는 기존의 연구결과가 뒷받침해준다. 이처럼 희망에 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 성취의욕, 사회적 적응성 및 심리적 안녕감이 희망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긍정적 감정을 고취시키고 탄력적 사고의 형성을 돕는 내용을 프로그램의 구성에 포함하였다. 반면 경로사고(Pathway Thinking)는 목표를 달성해가는 과정적인 부분과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목표달성을 위해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에 대해 가능한 경로들을 생성할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전제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사실상 대안적인 경로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생성하며(Irving et al., 1991), 문제해결에 대처하는 능력 역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원두리, 2011; Snyder et al, 1991). 또한 사회적 지지가 높은 청소년은 희망수준이 높으며(Snyder, 2000), 사회적 지지의 칭찬과 격려를 통해 목표성취가능성이 향상된다(장효진, 임정하, 2010). 이러한 연구결과는 경로사고증진을 위한 통로를 마련해준다. 따라서 본 프로그램에서는 저소득 청소년의 경로사고 촉진을 위해 자신의 형편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대처할 수 있는 경로와 과정을 스스로 찾는 내용과 사회적 지지의 개입으로 구성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해, 희망이론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저소득 청소년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이론적 틀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첫째, 희망이론이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해결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어 왔다(조한익, 2010; 최동욱, 2005). 희망이론을 적용한 상담프로그램 연구에서 학습동기 상승이라는 학업적 효과뿐만 아니라 희망적 사고의 습득이라는 심리적 효과를 확인하였다(박문규, 이영순, 2011; 백영정, 2008; 홍현주, 2012). 희망이론을 적용한 상담프로그램이 효과적이었다는 연구결과들을 고려해 볼 때, 희망이론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이 저소득 청소년에게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희망이론을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희망증진은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조절함으로써 이루어지기보다 공감, 사회적지지, 칭찬활동 등의 외부로부터의 지지가 있을 때 효과적이라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장효진, 임정하, 2010; 이용철, 2009; Snyder, 2000). 희망이론은 낙관성이나 자기효능감과 달리 감정의 원인을 분석하는 과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목표달성의 방해상황이나 문제해결과정에서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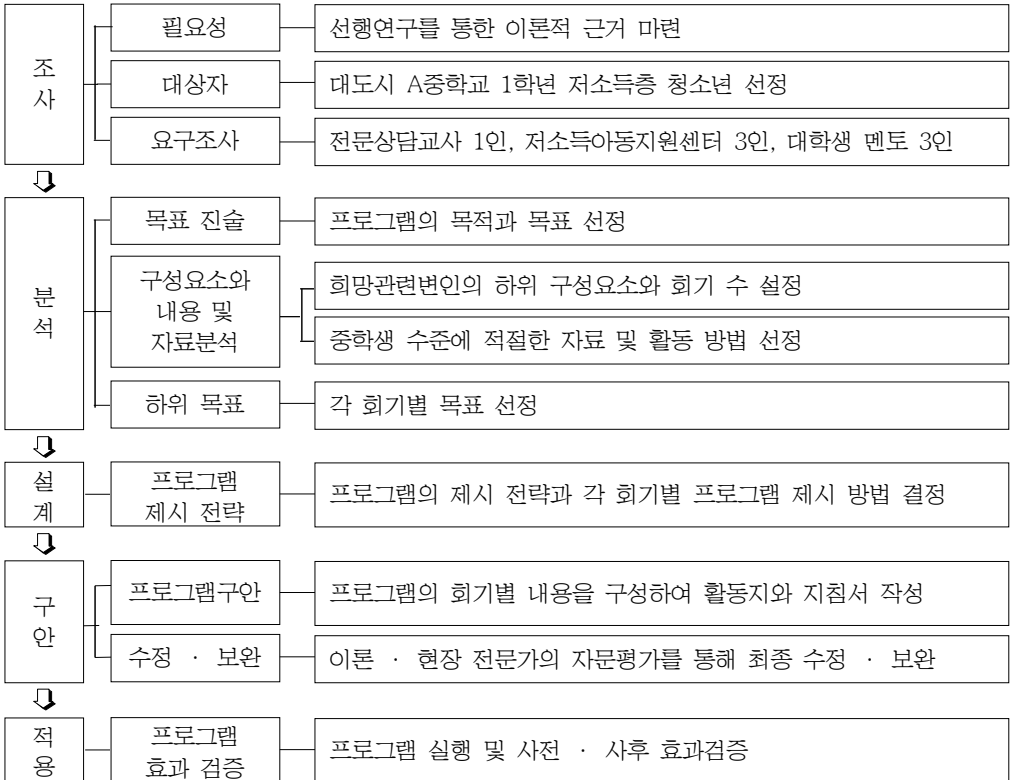
하는 감정이 목표추구에 대한 성공적인 지각이 된다고 본다(Snyder & Lopez, 2008). 따라서 상담가는 청소년의 탄력적 적응과 성취의지의 향상을 위해 희망증진 전략이 요구되며, 이는 희망 이론이 저소득 청소년 상담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로 적절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준다.

### III.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

#### 1. 방법

##### 1) 프로그램 개발모형

본 연구에서는 박인우(1995)의 상담프로그램 개발모형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조사, 분석, 설계, 개발, 실시, 총괄평가의 6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프로그램 구안 절차와 내용

## 2) 프로그램 설계

### (1) 요구조사

전문상담교사 1인과 저소득아동지원센터 담당자 3인 및 저소득 청소년 멘토 경험이 있는 대학생 멘토들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면담을 통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요구조사 설문지는 김창대 외(2011)의 프로그램 개발 지침서에서 제시된 요구분석을 위한 기본질문 여섯 가지를 바탕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작성하였고 면담을 통해 저소득 청소년의 희망 관련 특성을 파악하였다. 요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저소득 청소년들의 의지의 결함, 목표의식의 부족 등을 특징으로 지적하였다. 요구조사의 결과는 문헌연구를 통해 확인한 교육적 열망의 감소, 학교부적응, 부모-자녀 갈등 등 위험요인이 많다는 내용과 일치하였다. 또한 프로그램 내용과 방법과 관련해서는 1:1의 관계보다 집단으로 활동하는 모임을 통해 상호작용 증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구체적인 멘토링의 지침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슈퍼비전의 경우에도 형식적인 교육 및 강의식 진행보다는 맞춤형 슈퍼비전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 (2) 프로그램의 목표 및 내용구성

선행연구 및 요구조사를 바탕으로 저소득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의 특성을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하고 각 측면에 대한 프로그램 목표를 설정한 후 이 목표의 성취를 위한 변화원리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특성은 삶의 의미와 목표에 대한 인식 부족과 목표설정의 부족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 청소년들이 생활의 목표의 필요성을 깨닫고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목표의식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특성은 불안 및 우울과 낮은 자존감과 목표성취의지 부족이다. 이를 위하여 저소득 청소년들의 희망달성의지를 고취시키고자 하였다. 이는 희망의 주도사고 증진과 관련이 있으며, 이를 위해 프로그램의 활동에서 과제를 제시하고 집단원들이 활동 목표를 이루도록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목표지향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도록 하였다. 세 번째 특성은 교육경험 기회와 목표달성 및 성공경험의 부족이다. 이를 위하여 경로사고 증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희망달성방법을 탐색하고 이해하도록 도왔다. 이러한 저소득 청소년의 특성에 따른 활동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동기조절, 인지조절, 행동조절, 정서적 지지의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개입하고자 하였다. 청소년은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영역에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대상이므로(Rice, Dolgin et al., 2009) 다양한 접근과 개입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전체 프로그램을 목표와 관련된 동기조절전략, 경로사고 증진과 관련하여 인지조절전략, 주도사고 증진을 위한 행동조절전략으로 나누어 <표1>과 같이 세부 회기 내용을 구성하였다.

<표 1> 프로그램 회기별 목표와 내용 구성

회기	주제	회기별 구성요소		내용
		개입방법	목표	
1회기 (45분)	도입		오리엔테이션 및 별칭짓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프로그램 및 멘토 소개</li> <li>집단원 상호간의 소개</li> <li>별칭짓기 및 소집단활동</li> </ul>
2회기 (45분)	희망탐색	목표 (동기조절)	목표의 중요성 이해 목표유무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의 필요성 이해</li> <li>나의 목표 유무를 확인 (나를 이해하기)</li> </ul>
3회기 (45분)	희망 설정	목표 (동기조절)	나의 목표 찾기 나의 인생목표 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 찾기</li> <li>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설계</li> </ul>
4회기 (45분)	희망	경로사고 (인지조절)	목표지향성의 이해 목표달성 전략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목표지향성에 대한 이해</li> <li>소집단의 과제수행의 목표수행 방법탐색</li> </ul>
5회기 (45분)	달성방법 탐색	경로사고 (인지조절)	탄력성의 개념이해 탄력성 증진을 위한 전략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력성에 대한 이해</li> <li>역경극복 사례 및 성공경험 발표하기</li> <li>역경극복을 위해 장점발견 및 격려하기</li> </ul>
6회기 (45분)	희망	주도사고 (행동조절)	역경 극복 의지 향상 탄력성 경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탄력성을 주제로 역경성공스토리 만들기</li> <li>역할극을 통해 탄력성 경험하기</li> </ul>
7회기 (45분)	달성의지 고취	주도사고 (행동조절)	목표성취의지 고취 목표달성 과정을 통해 성취경험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경성공 스토리를 동영상으로 제작</li> <li>집단의 과제(영상제작)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 다지기</li> </ul>
8회기 (45분)	마무리		변화된 모습 발견하기 프로그램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회기 집단별 영상 시청</li> <li>전체회기 돌아보기</li> <li>다짐선언문을 통해 격려하고 마무리</li> <li>멘토와의 관계 마무리</li> </ul>

### (3) 프로그램의 수정 및 보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잠정적으로 구안한 프로그램의 시안에 대해 변화원리의 타당성, 프로그램 구성의 적절성, 활동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여부를 이론전문가와 현장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수정하였다. 자문단의 구성은 상담관련 전공교수 1명과 교육상담 박사과정 2인 및 상담심리 박사과정 1인으로 전체 프로그램 구성과 내용에 대해 5점 척도로 평가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주관적 응답을 허락하여 질적인 자문을 파악함으로써 세부적인 보완사항을 직접 기록하도록 했다. 자문 의견을 수집한 결과 프로그램 변화의 적절성(M=4.50, SD=.50), 구성의 적절성(M=3.75, SD=.43), 활동목표의 적절성(M=3.75, SD=.43) 및 활동내용의 적절성(M=4.00, SD=.00)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개방형 질문에 대한 자문의견을 종합하고 이를 반영하였다.

## 2. 결과

### 1) 개발된 프로그램의 내용

이상에서 설명한 프로그램 설계의 과정에 따라 아래의 <표 2>와 같은 최종 멘토링 프로그램이 개발되었다. 희망증진을 주요 목표로 목표설정, 경로사고 증진, 주도사고 증진으로 나누고 동기적인 측면에 해당하는 주도사고 증진에서 희망달성의지를 고취하도록 구성하고 경로사고의 증진을 위해서는 탄력성과 목표지향성을 향상시키는 과정이나 방법들을 소개하고 직접 경험해보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회기별로 활동의 구성 방법과 활동을 선택한 의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목표설정에 해당하는 2-3회기에서는 My Work Plan이라는 활동지를 작성하고 발표하였으며, 버킷 리스트(죽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 작성해보기를 통해 현재 나의 목표를 확인하고 목표유무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전체 프로그램 종료 전까지 각 소집단들은 희망증진의 주제를 담은 영상제작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 목표설정, 달성과정을 프로그램의 활동으로 실행 하면서 직접 성취경험을 갖도록 하였다. 주도사고 증진을 위한 4, 7회기에는 인지변화를 추구하는 단계로 프로그램 과제달성을 위한 목표, 필요사항 등을 확인하고, 4회기에서는 열정확인 설문지를 통해, 7회기에서는 다짐선언문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의지를 고취시키도록 구성하였다. 반면, 행동적 전략에 속하며, 희망이론의 경로사고가 주제가 되는 5, 6회기에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지지받고 있음을 인식하고 대안적 경로를 탐색하도록 구성하였다.

<표 2>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상담프로그램 세부내용

회기	단계	주제	목표 및 활동내용		수집 및 보완내용
1회기	도입	오리엔테이션 및 소개하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집단원과 멘토 소개하기</li> <li>•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설명하고, 활동에 대한 서약</li> <li>• 사전검사를 실시</li> </ul>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행자 소개 및 프로그램 소개</li> <li>• 자기 소개지를 작성한 후 발표하기</li> <li>• 멘토팁별 활동과 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집단 발표 및 소집단별 모임 갖기</li> <li>- 서약서를 통해 활동에 대한 서약하기</li> </ul> </li> <li>• 다시 전체로 모여서 활동마무리 및 사전검사 실시</li> </ul>	

회기	단계	주제	목표 및 활동내용		수집 및 보완내용
2 회기	희망 탐색	목표 (동기조절)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탐색하기</li> <li>• 나의 목표 유무를 확인하기</li> <li>- 자신에 대한 이해</li> </ul>	기존 프로그램 검토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
			활동	<p>&lt;My Work Plan&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y Work Plan'이라는 [활동지1]을 작성한다.</li> <li>- 나의 목표유무를 확인하고, 목표의 중요성이해</li> </ul>	
3 회기	희망 설정	목표 (동기조절)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아본다 (버킷리스트 작성하기).</li> <li>•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목표설계</li> <li>- 나의 삶 속에서 언제, 어떤 목표를 이룰 것인지 일생동안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계한다.</li> </ul>	박문규, 이영순 (2011)의 연구에서 참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버킷리스트 예고편을 보고, 죽기 전 꼭 해야 할 일 50가지를 [활동지 2]에 적어본다.</li> <li>• 그 중 Best 3을 뽑아 발표하기</li> <li>• 버킷리스트를 언제, 어떤 목표를 이루고 싶은지를 결정하고 인생그래프 활동지를통해 기록하고 발표한다(절대 불가능한 목표는 제외).</li> </ul>	
4 회기	희망 달성 방법 탐색	주도사고 (인지조절)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나의 목표지향성은 무엇이며,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기</li> <li>•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성향 알아보기</li> <li>• 본 활동을 바탕으로 소집단에 주어진 과제를 이루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방법 탐색</li> </ul>	KYC 좋은친구만들기 운동(2006) & 박문규, 이영순 (2011)의 연구에서 참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지식채널 영상자료(박지성 관련 영상)를 시청한 후 느낀 점 발표하기</li> <li>• [활동지 3]의 열정확인 설문지를 통해 나의 열정을 확인하고, 목표달성에 필요한 자세를 토론해본다.</li> <li>• 본 활동이 끝나면, 오늘의 활동을 바탕으로 소집단에 주어진 과제를 이루기 위한 수행목표와 계획을 세우고, 목표달성의 방법을 탐색한다.</li> </ul>	
5 회기	희망 달성 방법 탐색	경로사고 (행동조절)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탄력성의 개념 이해</li> <li>• 나의 탄력성의 경험 떠올리기</li> <li>- 역경극복 사례 및 성공경험을 탐색하고 타인과의 공유를 통해 사회적 지지를 경험한다.</li> </ul>	윤혜선 (2010)의 논문 & 신현숙, 김미정 (2009)의 연구를 참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지식채널 영상자료(나는 달린다)를 시청한 후 소감을 적고 발표한다.</li> <li>• [활동지 4]를 작성하고, 역경을 이겨낸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보고, 역경을 이겨내는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토론한다.</li> <li>• [활동지 4]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나의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서로의 장점을 발견해주고, 격려한다.</li> </ul>	

회기	단계	주제	목표 및 활동내용		수집 및 보완내용
6 회기	희망달성의 지고취	경로사고 (행동조절)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회기를 바탕으로 역경성공스토리 만들기</li> <li>• 역할극을 통해 탄력성 경험하기</li> </ul>	고유림 (2008)의 논문을 참조.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난회기 역경을 이겨낸 경험들을 기억하며, 나만의 역경스토리를 만들어본다.</li> <li>• 서로 발표해보고, 역할극 하기 좋은 것으로 선택</li> <li>• 선정된 역경스토리로 역할극을 해본다.</li> <li>• 역할극을 하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li> </ul>	
7 회기	희망달성의 지고취	주도사고 (인지조절)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회기의 역할극을 바탕으로 동영상 제작</li> <li>• 집단의 과제(영상제작)를 달성하기 위한 의지</li> </ul>	기존 프로그램 검토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지식채널 영상자료(마라톤을 완주하는 방법)를 보고 느낀 점을 발표한다.</li> <li>• 3 회기에서 작성한 버킷리스트의 핵심목표 Best 3을 이루기 위한 다짐 선언문을 작성하고 발표한다.</li> <li>• 지난 회기 역할극과 자신들의 성취경험 및 다짐을 담은 간단한 영상(3분 정도)을 제작한다.</li> </ul>	
8 회기	종결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 회기 집단별 영상 시청</li> <li>• 다짐선언문을 통해 격려하고 마무리</li> <li>• 멘토와의 관계 마무리</li> </ul>	기존 프로그램 검토하여 연구자가 직접 개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단별로 제작한 영상을 시청하고, 전체 회기의 느낀점 발표하기</li> <li>• 프로그램을 통해 배운 것과 변화된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지 확인한다.</li> <li>• 멘토와의 관계와 프로그램을 마무리한다.</li> </ul>	

### 3. 논의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 선정을 위해 반구조화된 면담을 활용하여 요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저소득 청소년들의 의지결함 및 목표의식 부족 등이 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자들이 파악한 특징 및 문헌분석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파악되어 내용타당도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저소득 청소년의 지도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멘토만을 대상으로 요구조사를 실시하고 저소득 청소년의 직접적 목소리를 수렴하지 못했기 때문에 요구조사의 취약성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문헌분석과 전문가의 의견뿐만 아니라 저소득 청소년의 의견도 직접 반영하여 프로그램의 구성요소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구조사의 결과 중에서 1:1 관계의 멘토링보다 1:다수의 집단 멘토링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는데 전문가들은 저소득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면서 심리적 지지를 받고 저소득으로 인한 어려움을 자신만 겪는 것이 아님을 인식하고 자신감을 얻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저소득층 학생의 경우 상호작용에 기초한 집단 멘토링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는 것은 Yalom과 Leszcz(200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신의 고민을 타인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할 때, 즉 집단원이 문제에 대한 보편성(universality)을 공유할 때 강한 심리적 지지를 받는다는 설명에 의해 지지된다. 특히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양권 문화와 달리 집단주의 성향이 강한 아시아문화권 학생들은 집단의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들의 집단주의적 성향과 집단의 역동이 맞물려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다(Lee & Kelly, 1996; Takemura & Yuki, 2007).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1:1 기반의 전형적인 멘토링과 1:다수의 집단 멘토링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그램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통해 프로그램 초안에 대한 평가를 5점 척도로 실시하였을 때 변화의 적절성, 구성의 적절성 및 활동목표와 내용의 적절성 모두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평가는 이러한 양적정보 이외에 개방형 질문을 통한 질적정보를 포함하여 개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희망의 측면과 정서적 지지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러한 점은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정의적 측면을 강조하여 이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행동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신장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이 완성되었지만 만일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하여 회기를 늘린다면 인지적, 행동적 요소보다 정의적 요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V.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연구 2)

### 1.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은 대도시에 위치한 A중학교(전체 811명, 중식지원학생 비율은 14.2%) 1학년 학생 중에서 중식지원자를 기준으로, 학교성적이 중위권 이하의 학생 19명을 선정하여 멘토링 집단상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10명을 실험집단으로 하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 9명을 통제집단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학생은 3명이고, 남학생 7명이며, 멘토의 경우 남자 멘토 1명과 여자 멘토 2명으로 구성하였다. 멘토의 경우 연령은 모두 20대 후반으로 상담 및 교육학 분야에서 석사 과정이상의 학력과 교육경험을 지닌 자로 구성하였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9명의 통제집단에게는 추후검사 종료 시 까지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으며, 추후검사는 프로그램 종결 후 약 4주 후에 실시하였고 실험집단 및 통제집단에게 각각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참여자의 선발 과정은 중식지원자들 중 일차적으로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고, 추천 받은 학생들 중 상담교사의 제추천을 통해 선발하였다. 추천 기준은 성적이 중위권 이하이며, 수업시간에 학습에 대한 의지나 목표성이 부족하고 학교생활적응력이 낮은 정도가 사용되었다. 상담교사는 수 차례 사전 모임을 통해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에 적합한 대상과 프로그램의 세부내용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다. 반면 멘토의 경우, 상담 및 교육관련 분야의 석사 과정 이상 및 교육경험의 조건으로 한국상담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하여 개별 면접을 통해 선발하였다. 멘토간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멘토의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석사과정 이상의 학력과 교육 및 상담전공의 대학원 이상의 지원자를 멘토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멘토들에 대해 사전교육을 3회 실시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멘토에 대한 세부사항은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프로그램에 참여한 멘토의 세부사항

소집단 구성	성별	나이	학력	학교 및 전공	경력
집단 1 멘토교사	여	30세	석사졸업	OO대학교 상담심리전공	상담관련 자원봉사 1년 이상, 현장 상담경험 없음.
집단 2 멘토교사	여	29세	석사과정 3학기	OO대학교 교육상담전공	교육관련 자원봉사 3년 이상, 현장 상담경험 없음.
집단 3 멘토교사	남	28세	석사과정 3학기	OO대학교 음악교육전공	교육관련 자원봉사 2년 이상, 현장 상담경험 없음.

## 2) 연구설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설계는 이질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실제 모형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O <sub>1</sub>	X	O <sub>2</sub>	O <sub>5</sub>
O <sub>3</sub>		O <sub>4</sub>	O <sub>6</sub>

O<sub>1</sub> , O<sub>3</sub> : 사전검사(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 사전 검사)  
 O<sub>2</sub> , O<sub>4</sub> : 사후검사(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 사후 검사)  
 O<sub>5</sub> , O<sub>6</sub> : 추후검사(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 추후 검사)  
 X: 실험 처치(희망증진 프로그램)

[그림 2] 이질 통제집단 사전-사후 검사 설계

### 3) 측정도구

#### (1) 희망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중학교 1학년 학생임을 고려하여 조한익(2009)이 개발하고 타당화 한 희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Snyder의 희망이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문화와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한 것으로 약 10-13세 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로서 타당화 집단은 본 연구 대상의 연령과 유사하다. 본 척도는 모두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망주도와 희망경로의 하위 척도를 지니고 있으며 5점 Likert 형식으로 평가한다. 조한익(2009)의 연구에서 희망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90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93으로 확인되었다.

#### (2) 탄력성

본 연구에서는 주소영, 이양희(2011)에 의해 개발된 청소년용 탄력성 척도(RS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우리나라 일반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세-18세 청소년 1115명을 대상으로 타당화 한 도구로서, 총 27문항이며,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4개 하위요인은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문제해결 능력, 부정적 감정의 인내, 학업적 유능감 요인이다. 5점 Likert식 척도로 평가하며 주소영, 이양희(2011)의 연구에서 전체 27문항의 내적일치도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2로 확인되었다.

#### (3) 성취목표지향성

성취목표지향성 척도는 Elliott와 McGregor(2001)가 제시한 2x2 성취목표지향성 이론에 기초하여 선행연구들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로 네 개의 하위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번안하고 구성한 이주화, 김아영(2005)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 요인으로는 수행접근목표 5문항, 수행회피목표 5문항, 숙달접근목표 5문항, 숙달회피목표 5문항으로 되어 있다. 6점 Likert형식으로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6으로 나타났습니다.

#### 4) 자료처리 및 분석

저소득 청소년의 희망증진을 위한 집단 멘토링 상담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측정하였다. 검사시기별로 평균, 표준편차 등의 기술 통계치를 산출하고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동질성 검증을 위해 두 집단의 사전점수에 대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여 비교하였다.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후점수의 차이가 실제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에 따른 순수한 효과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를 공변인으로 하는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자료분석을 위해 IBM SPSS statistic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2. 결과

### 1)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 분석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동질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대해 사전 희망점수,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 점수와 각 척도의 하위요인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각각 산출하고, 독립  $t$  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처치 전 두 집단 간 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과 각 하위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희망, 탄력성, 성취목표지향성과 각 하위요인에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은 동질집단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검사 동질성 검증

측정요인	실험집단(N=10)	통제집단(N=9)	$t$
	M(SD)	M(SD)	
희망총점	30.50(6.67)	32.78(7.53)	-.699
희망주도사고	16.8(4.49)	17.67(5.17)	-.391
희망경로사고	13.70(2.58)	15.11(2.47)	-1.213
탄력성총점	79.30(11.89)	80.56(13.83)	-.213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34.40(3.78)	33.33(5.92)	.474
문제해결능력	16.70(3.80)	17.67(4.27)	-.522
부정적 감정의 인내	17.00(4.29)	18.22(2.49)	-.747
학업적 유능감	11.20(2.04)	11.33(3.16)	-.110
목표지향성 총점	59.70(21.82)	61.67(17.41)	-.215
수행접근목표	15.80(6.05)	15.33(4.82)	.184
수행회피목표	14.90(7.00)	15.11(4.17)	-.079
숙달접근목표	14.60(5.17)	16.33(5.17)	-.730
숙달회피목표	14.40(4.77)	14.89(3.95)	-.242

## 2)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 (1) 프로그램의 검사시기와 처치조건에 따른 희망의 변화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희망점수가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전검사가 사후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였다. 앞서 실시한 동질성 검증에서 두 집단의 동질성이 확인되었으나 사전검사에서 집단간 평균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전검사가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통제하기 위하여 공분산분석(ANCOVA)을 실시하면 오차변인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통제하여 보다 정확히 효과성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사전검사를 공변량으로 처리하는 공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황해익 외, 2008). 또한 사전-사후-추후 검사의 평균차이를 통해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의 지속성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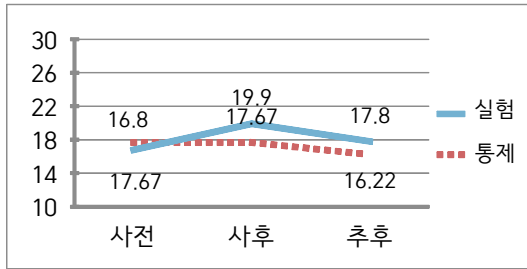
실험집단의 희망점수와 하위척도인 희망주도사고와 희망경로사고의 종속변인 별로 사전과 사후검사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5>에서 보듯이 희망총점의 경우 프로그램의 참여여부가 사후점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 $F=6.98, p<.05$ ). 뿐만 아니라 하위요인인 희망주도사고( $F=4.82, p<.05$ )와 희망경로사고( $F=5.60, p<.05$ )도 각각 프로그램 참여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효과성의 지속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후검사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시기별 대응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전-사후의 결과는 공변량분석과 동일하였으며, 사후-추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6). 사전, 사후, 추후의 시기에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희망과 하위요인의 평균 점수변화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그림 3). 즉, 본 연구에서 개발한 저소득 청소년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통제집단보다 희망과 하위요인인 희망주도사고와 희망경로사고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후 4주 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효과성이 지속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표 5> 사전-사후검사의 희망과 하위요인의 공변량 분석결과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df	평균 제곱	F
희망총점	공변량(사전점수)	434.01	1	434.01	18.53**
	주효과(참여여부)	163.36	1	163.36	6.98*
	오차	374.74	16	23.42	
희망주도사고	공변량(사전점수)	157.37	1	157.37	20.59***
	주효과(참여여부)	36.87	1	36.87	4.82*
	오차	122.28	16	7.64	
희망경로사고	공변량(사전점수)	56.34	1	56.34	7.14*
	주효과(참여여부)	44.15	1	44.15	5.60*
	오차	126.24	16	7.89	

<표 6>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후 검사 t 검증

하위척도	집단	사전	사후	추후	t
		M(SD)	M(SD)	M(SD)	사후-추후
희망총점	실험	30.50(6.67)	36.00(7.70)	32.20(9.94)	1.75
	통제	32.78(7.53)	32.11(6.66)	30.33(7.66)	1.04
희망주도사고	실험	16.8(4.49)	19.90(4.28)	17.80(5.01)	1.68
	통제	17.67(5.17)	17.67(4.00)	16.22(4.44)	1.39
희망경로사고	실험	13.70(2.58)	16.40(3.84)	14.40(5.06)	1.69
	통제	15.11(2.47)	14.44(3.09)	14.11(3.59)	.33



[그림 3] 희망 사전-사후-추후 점수의 변화

(2) 프로그램의 검사시기와 처치조건에 따른 탄력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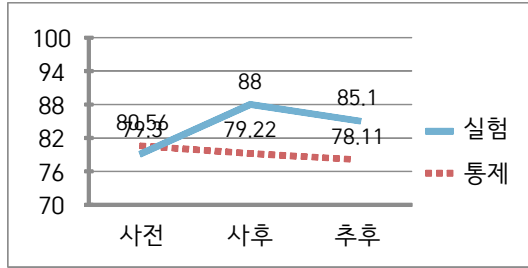
본 연구의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이 사전검사에 비해 사후검사시 탄력성이 유의하게 향상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의 결과, <표 7>과 같이 탄력성 총점이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F=5.16, p<.05$ ). 탄력성의 하위요인 중에는 부정적 감정의 인내가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 사후점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76, p<.05$ ). 즉, 본 프로그램의 참여여부는 탄력성 향상에 효과가 있으며, 하위요인 중에서는 부정적 감정의 인내의 효과성이 검증되었다. 프로그램 실시 후 추후검사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시기별 대응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8>과 같이 사전-사후의 결과는 공변량분석과 거의 동일하였으며, 사후-추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후 탄력성점수의 변화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사전, 사후, 추후의 시기에 따라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탄력성의 평균 점수변화를 그래프로 확인하였다. 프로그램의 중재 여부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탄력성 척도의 평균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4]와 같다.

<표 7> 사전-사후검사의 탄력성과 하위요인의 공변량 분석결과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탄력성 총점	공변량(사전점수)	2751.88	1	2751.88	29.76***
	주효과(참여여부)	476.88	1	476.88	5.16*
	오차	1479.77	16	92.49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공변량(사전점수)	431.02	1	431.02	17.26**
	주효과(참여여부)	49.84	1	49.84	2.00
	오차	399.67	16	24.98	
문제해결능력	공변량(사전점수)	108.25	1	108.25	11.49**
	주효과(참여여부)	21.69	1	21.69	2.30
	오차	150.69	16	9.42	
부정적 감정의 인내	공변량(사전점수)	130.56	1	130.56	15.44**
	주효과(참여여부)	40.28	1	40.28	4.76*
	오차	135.29	16	8.46	
학업적 유능감	공변량(사전점수)	35.79	1	35.79	6.01*
	주효과(참여여부)	5.58	1	5.58	.94
	오차	95.27	16	5.95	

<표 8>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후 검사 t 검증

하위척도	집단	사전	사후	추후	t
		M(SD)	M(SD)	M(SD)	사후-추후
탄력성총점	실험	79.30(11.89)	88.00(18.15)	85.10(17.52)	.82
	통제	80.56(13.83)	79.22(13.13)	78.11(14.41)	.55
자기와 타인에 대한 신뢰	실험	34.40(3.78)	36.20(7.38)	35.30(6.42)	.54
	통제	33.33(5.92)	31.89(6.15)	31.11(5.30)	.75
문제해결능력	실험	16.70(3.80)	19.30(4.52)	19.00(3.94)	.31
	통제	17.67(4.27)	17.78(3.27)	17.89(4.62)	-.10
부정적 감정의 인내	실험	17.00(4.29)	19.60(4.90)	18.40(3.53)	1.28
	통제	18.22(2.49)	17.67(3.00)	17.89(3.02)	-.45
학업적 유능감	실험	11.20(2.04)	12.90(3.18)	12.40(3.20)	.70
	통제	11.33(3.16)	11.89(2.26)	11.22(2.68)	1.27



[그림 4] 탄력성 사전-사후-추후 점수의 변화

(3) 프로그램의 검사시기와 처치조건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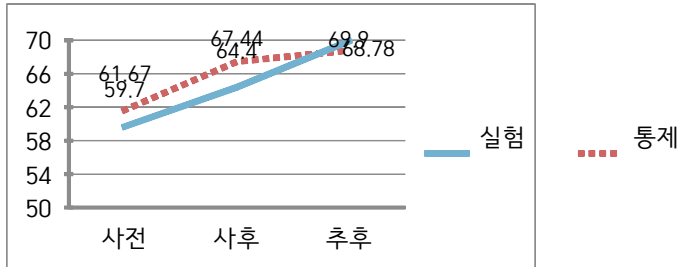
본 연구의 멘토링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와 검사시기에 따른 성취목표지향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사후검사에 대해 공변량분석(ANCOVA)을 실시하였고, 효과성 지속여부를 대응 *t* 검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표 9>와 같이 목표지향성 총점이 프로그램의 참여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성취목표지향성의 모든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 실시 후 추후검사 점수에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시기별 대응 *t* 검증을 실시한 결과, <표 10>과 같이 실험집단의 사전-사후의 결과가 공변량 분석과 동일하게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추후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프로그램 실시 후 목표지향성의 점수변화는 유의미한 향상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의 중재 여부에 따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서 탄력성 척도의 평균변화를 살펴보면, [그림 5]와 같다.

<표 9> 사전-사후검사의 목표지향성과 하위요인의 공변량 분석결과

하위척도	변량원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목표지향성 총점	공변량(사전점수)	2917.028	1	2917.028	13.49**
	주효과(참여여부)	14.54	1	14.54	.07
	오차	3458.96	16	216.19	
수행접근목표	공변량(사전점수)	310.025	1	310.025	13.49**
	주효과(참여여부)	17.04	1	17.04	.74
	오차	367.67	16	22.98	
수행회피목표	공변량(사전점수)	101.809	1	101.809	3.65
	주효과(참여여부)	1.29	1	1.29	.05
	오차	446.06	16	27.88	
숙달접근목표	공변량(사전점수)	198.915	1	198.915	17.31**
	주효과(참여여부)	.337	1	.337	.03
	오차	183.91	16	11.49	
숙달회피목표	공변량(사전점수)	145.430	1	145.430	6.72*
	주효과(참여여부)	.40	1	.40	.02
	오차	346.27	16	21.64	

<표 10>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사후-추후 검사 t 검증

하위척도	집단	사전	사후	추후	t
		M(SD)	M(SD)	M(SD)	사후-추후
목표지향성 총점	실험	59.70(21.82)	64.40(22.57)	69.90(10.12)	-.64
	통제	61.67(17.41)	67.44(14.84)	68.78(16.28)	-.65
수행접근목표	실험	15.80(6.05)	15.80(7.32)	17.10(3.03)	-.65
	통제	15.33(4.82)	17.33(5.02)	15.44(3.75)	1.55
수행회피목표	실험	14.90(7.00)	16.59(6.31)	16.30(3.09)	.15
	통제	15.11(4.17)	17.11(4.86)	18.33(4.97)	-.94
숙달접근목표	실험	14.60(5.17)	16.80(5.05)	17.50(3.21)	-.52
	통제	16.33(5.17)	17.67(4.33)	17.33(4.53)	.34
숙달회피목표	실험	14.40(4.77)	15.30(6.38)	17.00(2.58)	-1.02
	통제	14.89(3.95)	15.33(3.97)	17.67(4.77)	-1.44



[그림 5] 성취목표지향성 사전-사후-추후 점수의 변화

### 3. 논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프로그램을 저소득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저소득가정 청소년을 위한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희망의 하위 척도인 희망주도사고와 희망경로사고 모두에서 희망의 정도가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이는 일반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한 희망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학생들의 희망수준이 향상되었다는 연구결과(박문규, 이영순, 2011)와 동일하고, 취약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희망수준의 긍정적 효과를 검증한 연구결과와 유사하다(김옥란, 2011). 그러나 본 연구는 프로그램 실시 후 증가된 효과성이 추후검사까지 유지된 점을 감안할 때 선행연구들에 비해

보다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멘토를 통한 소집단 형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중학생에게 분명한 목표의식의 향상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는 실천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선행연구의 결과들도 유사하게 프로그램 실시 이후 점수가 향상되었지만, 대상이 다르고, 멘토링의 진행 및 구성방식이 집단 멘토링이라는 형태로 이전의 연구와는 달랐으므로 본 연구는 유사한 결과에도 집단 멘토링의 효과성 검증이라는 차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저소득층 청소년의 희망증진 집단 멘토링 프로그램을 경험한 실험집단의 학생들은 통제집단보다 탄력성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는데 특히 부정적 감정의 인내라는 하위요인에서 유의미한 상승효과가 나타났으며 효과는 4주간 지속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희망변인이 청소년의 탄력성과정에서 중요한 보호요인이라는 연구결과(김택호, 2004)에 의해 일부 뒷받침 일치한다. 또한 희망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 정서가 낮고(Snyder, 2000), 고양된 자기가치감과 낮은 우울을 나타낸다는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Snyder, et al., 1991). 이로써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 청소년이 가정환경과 경제적 결핍 등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루는데 탄력적인 적응을 하도록 돕고 희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특히 부정적 감정의 인내를 통해 저소득청소년이 자신의 역경을 문제로만 바라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으로 전환될 수 있었음을 시사한다.

셋째,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모든 하위 영역에 대해 사전-사후 검사 결과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성취목표지향성, 숙달접근목표성이 상승효과가 있었던 연구결과(박문규, 이영순, 2011)와는 다른 결과이다.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성취목표지향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다소 미흡하였다는 연구결과와는 일치한다(박병기, 박일선, 고유림, 2009). 성취목표지향성만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에서도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았다(박병기, 박일선, 고유림, 2009).

## VI. 종합논의 및 결론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선정된 희망, 탄력성 및 목표지향성에 대해 저소득 청소년들은 집단 멘토링을 받은 후 희망과 탄력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증가된 희망과 탄력성은 4주간 지속된 반면 목표지향성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희망의 경우 2개의 하위변인인 희망주도사고와 희망경로 사고 모두 같은 변화를 보인 점을 감안할 때 프로그램을 통해 목표지향에 대한 에너지의 증가와 동시에 그러한 에너지를 계획으로 실현시키는 영역에서 개선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탄



력성은 부정적 감정의 인내 요인에서만 유의미한 변화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탄력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이 변인이 희망요인과 상관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희망과 탄력성의 변인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멘토의 사회적 지지와 동시에 멘티들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활용한 집단 멘토링 방식이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탄력성을 신장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소득층 청소년의 경우 학교적응을 방해하는 다양한 환경적 위험요인에 직면하게 되는데 희망과 탄력성이 이러한 위험요인의 영향을 완충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사후-추후 검사에서 희망과 탄력성이 모두 약간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통제집단에서도 사후-추후 검사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인 점을 감안하면 일부 외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희망의 경우, 감소의 폭이 통제집단과 비교할 때 희망경로사고보다 희망주도사고에서 큰 점 등은 후속연구를 통해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성취목표지향성의 경우 유의미한 변화가 발생하지 못한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 먼저, 성취목표지향성은 희망이나 탄력성에 비해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려는 경향성이 강한데 본 프로그램에서는 하나의 구체적인 성취목표를 정하고 이를 이루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목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목표를 설계하는 방식으로 내용이 구성되어 성취목표지향성 자체를 높이는 것이 다소 무리였을 수 있다. 또한 목표설정과 성취목표지향성을 측정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계속 있었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학업의 영역을 완전히 제외한 목표지향성 척도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선택된 척도가 학생들의 학습과 관련된 목표와 목표의지를 내포하고 있었기에 학업성취수준이 낮고, 학교부적응, 학습 및 주의집중의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로 선발된 본 연구의 대상에게는 학업에 대한 내용을 받아들이고 반감을 가지게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희망은 주도사고와 경로사고가 목표지향과정에서 단일하게 추가되어 적응력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두 변인이 계속적으로 상호작용하여 희망수준이 향상된다(Snyder, et al., 1991). 따라서 희망증진을 추구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업적 목표성취에 대한 성향이 단독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기는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에서는 저소득층 청소년이 학업적 목표성취에 있어서도 희망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를 선행프로그램과의 차별성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프로그램은 선행연구의 제한점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제언을 적극 반영하여 효과적 프로그램의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에 1:다수의 집단 멘토링의 형태와 멘토교육 및 슈퍼비전의 제한점을 극복하고자 학교현장에서 기반을 둔 프로그램으로 개발하고, 학교의 상담교사를 슈퍼비전 및 멘토선정에 핵심인력으로 활용하였다. 둘째, 대학생 멘토와 프로그램 운영 전문가의 요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멘토에 대한 사전교육의 중요성은 계속

해서 강조되어 왔지만, 멘토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멘토의 요구를 반영한 사전교육과 지침서 개발은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지닌다. 희망이론을 활용한 기존의 상담프로그램 연구에서는 1-2회 정도의 일회적인 멘토교육에 그치거나 강의식 전달에 주로 의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고자 지침서를 개발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프로그램 진행방법을 지침서를 통해 전달하고자 구성하였다. 셋째, 전문가의 슈퍼비전에 대해 학교 상담교사를 활용하였다는 점은 학교상담이 양과 질적인 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현재의 추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사례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선행연구에서 멘토링 슈퍼비전이 항상 연구의 제한점으로 남거나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멘토들이 학생들을 대해 느끼는 감정이나 반응을 슈퍼비전을 하는 전문가에게 전달하기 위해 많은 표현을 해야 하지만, 평소에 학교상담교사는 멘티학생들을 돌보아 왔기 때문에 멘토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멘토들의 요구사항이나 애로사항을 빠르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학생들의 행동이나 생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넷째,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희망, 탄력성, 부정적 감정의 인내가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국내의 희망연구는 부족하고, 저소득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희망요인의 효과성을 확인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므로 저소득청소년을 위한 새로운 보호요인의 발견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도시의 1개 중학교에서 저소득계층 10명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연구하였기 때문에 대상의 연령과 범위의 제한성이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체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일반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다양한 지역의 저소득 중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거나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서 고등학생까지 폭넓은 연령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전문가와 멘토의 요구는 직접 조사를 통해 반영하였지만, 멘티의 희망수준, 탄력성수준, 목표지향성을 수준별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세 가지 변인을 사전에 측정하고, 사전점수에 따라 집단을 나누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효과를 세부적으로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3명의 멘토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요구조사의 인원도 총 6명으로 그에 따르는 연구결과도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멘토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자 연구자 자신을 제외하고, 상담학회 홈페이지, 교내 학생 연락망 등을 활용하는 등의 멘토선정에 대한 노력을 하였지만, 질적 변수를 완전히 통제할 수 없었고, 선정 기준의 타당성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멘토 선정에도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여 희망수준이나 탄력성 수준을 측정하여 높게 측정된 멘토들로 선발하는 식을 제안한다. 또한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티의 변화 뿐만 아니라 멘토의 변화라는 효과도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이 멘토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프로그램 효과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 외에 비

교집단을 두어 공통적 변화요인 및 본 프로그램만의 고유한 변화요인을 변별하는 연구설계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사전검사와 사후검사, 추후검사 측정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을 실시하였던 본 연구는 사전-사후 검사에서 점수 차이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일부 사후-추후 기간 동안 점수의 변화가 다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 결과로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지속성이 유지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반면,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추후까지 효과성이 지속되도록 프로그램을 수정·보완하거나, 효과성 지속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멘토링의 장점은 1:1의 결연관계라는 점과 장기간 실행가능하다는 점인데, 본 연구의 프로그램은 4주라는 단기간동안 실시되었고, 추후검사기간 또한 프로그램 효과가 유지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에 짧은 제한점을 지닌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적응을 돕기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실행에 다양한 교육적 함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참고문헌

- 고유림 (2008). 성취목표지향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 권성연 (2007). 대학생의 목표지향성과 자기효능감의 관계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7(2).
- 권혁일 (2010). 예비 초등교사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초등교육연구, 23(1), 109-140.
- 김경준, 오해섭, 김지연, 정익중, 정소연 (2010). 청소년의 사회적 참여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가정 아동 지원 방안 연구 1: 청소년멘토링활동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서, 2010, 1-426.
- 김경희, 황혜정 (1998).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행동 문제와 부모의 자녀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1(1), 12-26.
- 김남숙 (2011). 취약가정자녀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설계의 방향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8(3), 355-380.
- 김남숙, 김승현 (2011). 아동청소년멘토링 활성화를 위한 멘토 FGI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67, 387-403.
- 김순규 (2004). 가족환경 요인이 청소년 학업중퇴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1(3), 43-36.
- 김순규, 이재경 (2007). 빈곤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학연구, 14(5), 75-98.
- 김옥란 (2011). 희망증진 집단 프로그램이 아동보호시설 비행청소년의 희망감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상지대학교 평화안보대학원.
- 김영희, 김운주, 박경옥, 이희숙, 김창기 (2000).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의 일탈행동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6), 149-169.
- 김지선 (2003). 비행청소년을 위한 멘토링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소식, 76, 33-38.
- 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개발과 평가. 서울: 학지사.
- 김택호, 김재환 (2004). 청소년의 탄력성 발달 과정에서 희망과 삶의 의미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6(3), 465-490.
- 김택호, 서미, 조한익 (2005). 청소년의 탄력성집단과 부적응집단에 따른 이점발견의 차이. 상담학연구, 6(2), 515-529.
- 김현수, 오인수 (2012). 저소득층 중학생의 학교적응유연성 보호요인 탐색. 상담학연구, 13(2),

917-933.

- 김희정 (2003). 저소득층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 노경란 (2011). 빈곤 가정 청소년의 가정적, 개인적 특성과 주관적 인식 특성이 진로장벽 인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빈곤 가정 청소년의 진로개발을 위한 평생교육영역에서의 지원 활성화 관점. 교육연구논총, 32(2), 81-105.
- 민하영, 김경화 (2007). 저소득 가정과 일반 가정 아동의 우울성향에 대한 부모간 갈등과 양육행동의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33-41.
- 박랑규, 강우선 (2006). 저소득층 아동의 정서, 행동 특성.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1), 1-23.
- 박문규, 이영순 (2011).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학습동기와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12(2), 505-522.
- 박병기, 박일선, 고유림 (2009). 성취목표지향성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검증. 한국교육심리학회, 23(3), 521-541.
- 박인우 (1995). 효율적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계적 모형. 지도상담, 20, 19-40.
- 박현선 (1998).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1), 23-52.
- 박현선 (1999). 심리사회적 학교환경이 빈곤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 105-129.
-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정서적 발달 간의 관계. 한국사회복지학, 58(2), 303-330.
- 박현선, 이세용, 권혜진, 이현주, 남승연 (2007). 저소득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지원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2007(3).
- 박현선, 이현주, 정익중 (2011). 학업성취와 학교만족도의 중단적 상호 관계: 빈곤 및 비빈곤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2(3), 183-206.
- 방진희 (2004).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4, 113-142.
- 백영정 (2008). 초등학생을 위한 희망증진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백정재, 이재연 (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12(1), 71-93.
- 송영명, 이명자 (2009) 학생의 부모 및 동기관련 변인과 교사의 배경 및 사회심리적 변인이 성취목표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심리학회, 23(2), 361-387.
- 신종임, 현채송 (2008). 부모 지지, 희망 및 진로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 한국동서

- 정신과학회, 11(2), 45-59.
- 신현숙 (2004). 가정환경 역경에 적응유연한 청소년의 보호요소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5(1), 141-161.
- 신현숙, 김미정 (2009). 감사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지각된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6(1), 205-224.
- 양명희 (2009). 성취목표지향성이 학습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서의 조절효과. 한국교육심리학회, 23(1), 51-71.
- 오경자, 김은이, 문경주, 정안숙, 박주용, 도례미 (2003). 임상 : 구두발표 ;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3(1), 99-100.
- 오경자, 문경주 (2006).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가족위험요인과 부모자녀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1), 59-76.
- 오승환 (2006). 저소득 결손가족 청소년의 적응 결정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21, 181-205.
- 원두리 (2011). 경험논문 : 사회적지지, 희망 및 문제해결 대처가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과 문제해결 대처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6(2), 297-311.
- 윤혜선 (2010). 자아 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 탄력성과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승현, 이영호 (2011).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성취목표지향성의 관계에서 부모양육태도의 조절효과.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7, 41-65.
- 이용철 (2009). 희망, 공감, 사회적 지지가 저소득 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이정숙, 김수진, 김영란, 김보영 (2010). 적응유연성증진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기효능감, 문제 해결능력 및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효과. 정신간호학회지, 19(4), 400-410.
- 이주화, 김아영 (2005). 학업적 성취목표지향성 척도 개발. 한국교육심리학회, 19(1), 311-325.
- 이해리 (2008). 청소년의 역경과 긍정적 적응. 상담학연구, 9(2), 689-707.
- 이해리, 조한익 (2005). 한국 청소년 탄력성 척도의 개발. 한국청소년연구, 16(2), 161-206.
- 이희경 (2007). 일반계제 : 중학생의 희망과 공감 하위집단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751-766.
- 장수한, 전미진 (2005). 빈곤학생의 적응력 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에 관한 연구. 학교사회복지, (1), 89-114.
- 장효진, 임정하 (2010).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희망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2(1), 67-78.
- 정무성 (2005). 청소년 멘토링 프로그램 선호와 참여의지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2(2),

26-50.

- 정은희, 이은아, 천성문 (2010). 빈곤가정 아동의 부모관련 스트레스와 부모지지가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포럼, 9(1), 63-85.
- 조한익 (2009). 초등학교 고학년용 희망척도의 개발과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심리학회, 23(2), 323-342.
- 조형숙, 김현주 (2005). 유아교사를 위한 집단 멘토링의 의미 탐색.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2(1), 227-263.
- 주소영, 이양희 (2011). 청소년용 탄력성(Resilience)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18(4), 103-139.
- 최경일 (2008). 한부모 가정의 청소년과 교사 간 멘토링 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47-67.
- 최동욱 (2005). 희망에서 주도요인과 경로요인의 기능 : 성취가능성과 우울/불안 관련 정서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최병연 (2001). 목표지향성이 성취관련 신념과 노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 28(1).
- 최선희, 김희수, 양혜원, 이근영, 최지현 (2010). 연구논문 : 저소득 아동, 청소년 멘토링에 대한 성과 인식 연구 -멘티, 멘토, 멘티부모의 다각적 성과 인식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253-276.
- 최윤정, 이시연 (2006). 빈곤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와 비행, 보호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회, 21, 89-113.
- 최윤정, 이시연 (2007). 저소득 가정 청소년의 부적응에 가족환경이 미치는 영향과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15(1), 39-19.
- 케이와이시 좋은친구만들기운동 (2006). 십대와 친구하기 : 청소년멘토링 가이드 북, 서울: 시금치.
- 한상철 (1997). 청소년지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체제접근적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대학상담학회지, 8(1), 1-24.
- 한준아, 박경자 (2008). 저소득층 이혼 가족 아동의 적응에 있어 보호요인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6(8), 1-15.
- 현미열, 이종은, 박선남 (2003). 청소년의 희망과 정신건강과의 상관관계 연구. 정신간호학회지, 12(2), 116-123.
- 홍현주 (2012). 긍정심리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우울과 희망 및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Boddy, J. (2009). Challenging gender role stereotypes and creating pathways for goal achievement: A study of a group mentoring programme for women from

- disadvantaged communities. *Qualitative Social Work*, 8(4), 489-508.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s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541-561.
- DeCarlo Santiago, C., Wadsworth, M. E. (2009). Coping with family conflict: what's helpful and what's not for low-income adolescents.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8(2), 192-202.
- Dweck, C. S. (2000). Self-theories: Their role in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Philadelphia, PA: Psychology Press.
- Elliot, A., & McGregor, H. (2001). A 2x2 achievement goal framework.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0, 501-519.
- Goosby, B. J. (2003). *The impact of poverty duration on youth behavioral and cognitive outco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State.
- Garn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416-430.
- Graber, H. V., & Wolfe, J. L. (2004). Family support center village: a unique approach for low-income single women with childre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8(1), 61-73.
- Grossma, J. B., & Garry, A. (1997). Mentoring: A proven delinquency prevention strategy. *Juvenile Justice Bulletin*. U. S. Department of Justice. April, 1-8.
- Harris, K. M., & Marnier, J. (1996). Poverty, Parent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 17(5), 614-640.
- Hashima, P. A., & Amato P. R. (1994). Poverty, Socail Support and Parental Behavior. *Child Development*, 65, 394-403.
- Herrera, C., Vang, Z., & Gale, L. Y. (2002). *Group mentoring: A study of mentoring groups in three programs*. Philadelphia: Public/Private Ventures.
- Huizing, R. L. (2012). Mentoring together: A literature review of group mentoring. *Mentoring & Tutoring: Partnership in Learning* 20(1), 27-55.
- Huston, A. (1991).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Cambridge, M. 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Irving, L. M., Snyder, C. R., Cheavens, J., Gravel, L., Hanke, J., Hilberg, P. Nelson, N. (2004). The relationships between hope and outcomes at the pre-treatment, beginning, and later phase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Psychotherapy Integration*, 14(4), 419-443.
- Jackson, Y. (2002). Mentoring for Delinquent Children: With Young Adolescent Children.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1(2), 115-122.

- Jent, J. F. & Niec, L. N. (2009). Cognitive behavioral principles within group mentoring: A randomized pilot study.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31(3), 203-219.
- Kaye, B. & Jacobson, B. (1995). Mentoring a group guide. *Training & Development*, 49(4), 22-27.
- Lee, I. & Kelly, E. W. (1996). Individualistic and collective group counseling: Effects with Korean client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 Development*, 24(4), 254-266.
- Luster, T., Bates, L., Vandenbelt, M., & Angela Nievar, M. (2004). Family advocates' perspectives on the early academic success of children born to low-income adolescent mothers. *Family Relations*, 53(1), 68-77.
- Luther, S. S. (1991). Vulnerability and Resilience: A Study of High-Risk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2, 600-612.
- Masten, A. S. (2001). Ordinary magic: Resilience process in Development. *Child American Psychologist*, 56(3), 227-238.
- Nasrallah, L. (1992). The effects of mentoring on at-risk students: A qualitative study. *Dissertation Abstract Intentional*. 53(6), 1802A.
- Rice, F. Philip ,Dolgin, K. Gale. (Ed.) (2009). 청소년 심리학[Adolescent :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Sipe, C. L., & Roder, A. E. (1999). *Monitoring school-age children: A classification of programs*. (ERIC Reproduction Service No. ED 431 070).
- Snyder, C. R. (2000) *Handbook of Hope : Theory, Measures & Applications*. Academic Press.
-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70-585.
- Snyder, C. R., Hoza, B., Pelham, W. E., Rapoff, M., Ware, L., Danovsky, M., Highberger, L., Rubinstein, H.,&Stahl, K. (1997).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hildren's Hope Scale.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2, 399-421.
- Snyder, C. R., & Feldman, D. B. (2000). Hope for the many; An empowering social agenda. In C. R. Snyder (Ed.), *Handbook of hope: Theory, measures, and applications* (pp. 402-415).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Snyder, C. R., Lopez, Shane J. (Ed.) (2008). 긍정심리학 핸드북[Handbook of Positive Psychology] (이희경 역). 학지사(원전은 2002년에 출판).
- Takemura, K. & Yuki, M. (2007). Are Japanese groups more competitive than Japanese

individuals? A cross-cultural validation of the interindividual-intergroup discontinuity effect.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42(1), 27-35.

Yalom, I. D., & Leszcz, M. (2005). *The theory and practice of group psychotherapy* (5th ed.). New York, NY: Basic Books.

\* 논문접수 2012년 8월 1일 / 1차 심사 2012년 9월 12일 / 2차 심사 2012년 10월 23일 / 게재승인 2012년 10월 23일

\* 백인혜: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재학 중임

\* E-mail: dlsp73@hanmail.net

\* 오인수: 서울교육대학교를 졸업하고 West Chester University에서 학교상담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상담자교육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함.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교육학과 조교수를 거쳐 현재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과 조교수로 재직 중임.

\* E-mail: insoo@ewha.ac.kr

Abstract

## Development and Testing of Effectiveness of Group Mentoring Program for Improving Hope, Resilience and Goal Orientation of Low-Income Adolescents\*

Baek, In Hye\*\*

Oh, Inso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mentoring counseling program designed for enhancement of hope among students in low-income family and to test its effectiveness. The researchers developed the mentoring program by following a counseling program development procedure based on needs assessment and literature review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as also tested by implementing the program to 29 middle school students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ten students in the experimental group and nine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Three mentors who majored in counseling or related field provided 8 mentoring sessions to ten mentees as a form of small group, which focuses on improving hope, resilienc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 analysis of covariance(ANCOVA) and t-test were used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the mentoring program and a t-test was used to identify the continuing effectiveness over the four weeks. The results show that the mentoring program was effective in increasing the participants' hope and resilience compared to the students in the control group and its effectiveness lasted for four weeks.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is to develop an effective mentoring program customized for enhancing hope, resilience and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students in low-income family and to test its effectiveness. Implications for better understanding and implementation of mentoring program for students in low-income family are suggested based on the results.

Key words: Low income, Hope, Resilienc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Group mentoring

---

\* Master student, Ewha Womans University

\*\* This study was financially supported by Korea Scholarship Foundation.

\*\*\* Corresponding author, Assistant professor, Ewha Womans University

